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12

▶ 13회 예고
왕자 아쇼까는 10세 이전부터 왕자수업을 받는다. 빈두사라는 목갈리뿟다띳사에게 아쇼까 전생을 알아보는 등 그의 법력을 시험해 본 뒤 왕자 선생이 되라고 명한다. 잔인한 성격의 어린 아쇼까는 목갈리뿟다띳사를 놀라게 한다.



까우띨리야 같은 스승을 찾다

빠딸리뿌뜨라성으로 돌아온 빈두사라는 예전과 같이 평상심을 되찾았다. 그의 눈에서는 살기가 사라졌고 손에 피를 묻히는 잔혹한 일도 없었다. 탁실라가 평온해지니 마우리아왕국에 복종하는 소국들은 사신을 정기적으로 보냈으며 조공의 예를 각별하게 갖추었다. 오직 동남쪽 변방의 깔링가국만 조공의 가짓수를 마음대로 줄이는 등 빈두사라의 신경을 은근히 곤두서게 했다. 그렇다고 빈두사라는 군사를 동원해 전쟁을 치를 수도 없었다.

빈두사라의 꿈은 왕자들을 잘 교육시킨 뒤, 언젠가 소국을 다스리는 부왕(副王)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특히 자신의 왕위를 이을 왕세자에게는 반란이 잦은 탁실라나 반골기질이 강한 깔링가국으로 보내 자질을 시험하면서 통치를 경험시킬 작정이었다. 때문에 빈두사라는 왕자들을 교육시킬 좋은 선생을 찾는 일에 전념했다. 빵갈로바뜨사는 병들어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짬빠성으로 돌아가 버린 상태였다. 브라흐민 칼라따까 제관이 있지만 그는 너무 브라흐민 전통만 강조했다.

빈두사라는 초조했다. 강가강으로 기도하러 나가려는 칼라따까를 붙잡아놓고 말했다.

"칼라따까 제관이여, 아직도 왕자를 교육시킬 선생을 찾지 못했소?"

"자이나교 수행자나 아지비까교 구루만 찾으라고 하니 한계가 있사옵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까우띨리야 대신을 만나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소. 어찌 그뿐이겠소. 끄샤뜨리아 무사신분의 짜라나비슈누 장군도 만나 병법을 배웠소. 어찌 이런 인물들이 우리 마우리아왕국에 없다는 말이오?"

칼라따까는 기도 중에 브라흐민교와 아지비까교, 자이나교가 지는 해 같고 반면에 불교는 뜨는 해처럼 다가오는 기운을 느꼈지만 차마 말을 못했다. 마우리아왕국에서 불교는 아직 낯선 종교였다.

"말해 보시오. 우리가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온 지 벌써 3년이 지났소. 왕위를 이을 수시마는 강가강으로 나가 뱃놀이나 하고 있소. 탁월한 선생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오."

"대왕이시여, 조그만 더 기다리시면 까우띨리야 같은 훌륭한 선생이 수행자들 중에서 나타날 것이옵니다. 원래 수행자란 태평성대 평화의 시기에는 은거수행을 하는 법이어서 찾기가 힘든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나의 시대가 평화의 시기란 말이오?"

"전쟁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평화의 시기이옵니다."

"제관의 말이 맞는 것도 같소."

"대왕이시여, 현명하시옵니다. 평화의 시기라고 해서 왕자님들의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되옵니다. 평화가 유지되려면 대왕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직분에 충실해야 하옵니다."

"나의 마우리아국을 세우신 할아버지 대왕 찬드라굽따 시절에 까우띨리야와 짜라나비슈누가 출현해 난다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해 날마다 전투를 벌이시던 할아버지를 열정적으로 도왔소. 그들은 나까지 가르쳤던 대신들이었소."

칼라따까는 까우띨리야 말만 나오면 반색을 했다.

"까우띨리야 대신도 독실한 브라흐민교 제관이었사옵니다. 브라흐민교를 신봉하옵소서."

찬드라굽따가 삡팔리바나국에서는 불교적 분위기 속에서 자랐지만 탁실라로 가서 까우띨리야를 만난 뒤부터 브라흐민교를 신봉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나라에 기근이 들어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자, 자신의 무능을 자책하며 자이나교에 귀의, 출가한 뒤 수행자로서 단식 끝에 생을 마감해버렸다.

"난 어느 종교에도 빠지고 싶지 않소. 브라흐민교나 자이나교나 아지바까교나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오. 그래서 빠딸리뿌뜨라성에는 여러 종교의 수행자들이 들어와 나의 공양을 받고 있는 것이오."

빈두사라의 말은 옳았다. 빠딸리뿌뜨라성에는 여러 종교의 수행자들이 자유스럽게 드나들었다. 내성으로 들어와 빈두사라의 공양을 받았다. 불교 수행자들만 성 출입을 꺼려했는데, 어떤 불교 수행자는 공양만 받고는 곧 외성으로 나가버렸다.

칼라따까가 갑자기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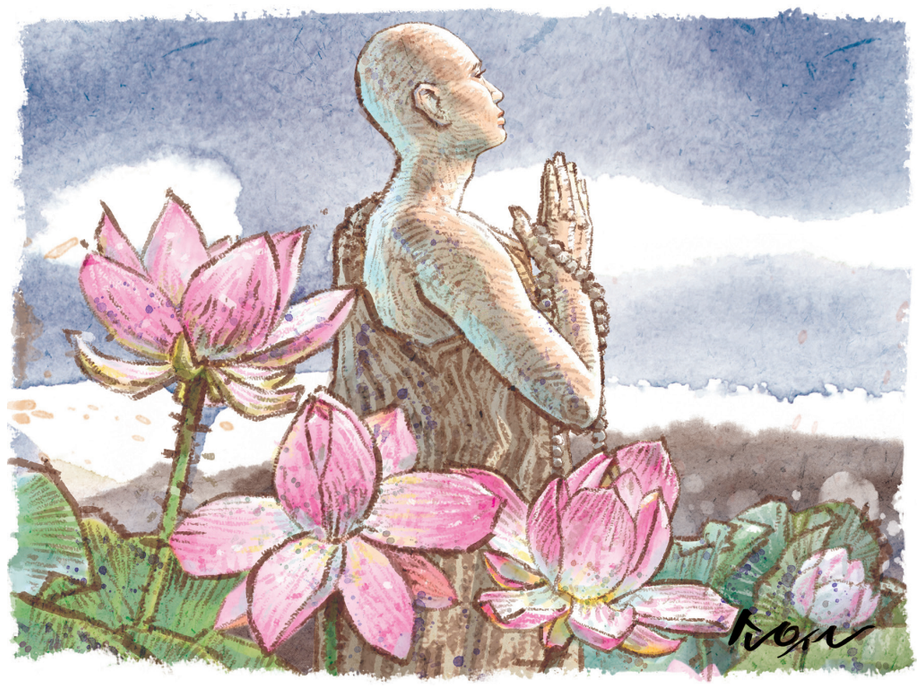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사옵니다만 기도 중에 불교 수행자들이 자꾸 떠오르옵니다. 이는 대왕께서 불교 수행자와 인연을 맺을 것이라는 암시이기도 하옵니다."

"불교 수행자라도 왕자를 잘 교육시킨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소?"

"그런 수행자를 보았소? 명성이 있는 수행자라면 데리고 와 보시오."

"대왕이시여, 아직 보지 못했사옵니다만 지금부터 바로 찾아보겠사옵니다."

빈두사라는 칼리따까에게 불교 수행자라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자신이 불교 수행자를 경멸하는 것은 깔링가국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지 다른 이유는 없었다. 실제로는 종교를 차별하는 자신의 태도에 회의를 느낀 적도 있었다. 아버지 찬드라굽따는 불교신자들이 많았던 삡팔리바나국 출신이었다. 삡팔리바나국은 꼬살라국 위두바나왕이 까삘라국을 공격했을 때 도망친 싸끼야(석가)족을 받아들인 히말라야 산속의 마우리아족이 세운 나라였던 것이다.



삡팔리바나국은 마우리아왕국보다 더 오래 된, 고타마 붓다 시절에는 공작새를 집안에서 기르던 마가다국 북쪽에 있는 소국이었다. 붓다가 꾸시나가라국에서 입적했을 때 삡팔리바나국 사신들이 다비식장에 늦게 도착하여 사리 대신 재를 가져가 회탑(灰塔)을 세운 일도 있었다. 꾸시나가라국에 이미 와 있던 마가다국 웨데히 왕비 아들 아자따삿뚜, 베살리국 릿차비족 사신, 까삘라성 싸끼야족 사신, 알라깝빠국의 불리족 사신, 라마가마국 꼴리야족 사신, 베타디빠국 브라흐민 사신, 빠다국 말라족 사신, 꾸시나가라국 말라족 사신 등이 붓다의 사리를 8등분하여 나눠가졌으므로 사리 분배를 중재한 브라흐민 도나는 마지막 남은 사리를 병에 받았고, 뒤늦게 온 삡팔리바나국의 마우리야족 사신은 숯덩이라도 그릇에 담아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빈두사라는 칼라따까를 불러 세웠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원래 우리 조상들은 관대했소. 삡팔리바나국의 마우리아족 조상들은 싸끼야족이 피난 왔을 때 물리치지 않고 받아주었소.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재를 받아 큰 묘탑을 세운 일도 있었소. 그러니 내가 훌륭한 불교 수행자에게 왕자교육을 맡긴다고 해도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오."

"대왕이시여. 오늘부터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겠사옵니다."

"엄격한 빵갈로바뜨사 구루가 없으니 수시마는 제멋대로 자라고 있소. 그래서야 어찌 마우리아왕국을 통치하겠소. 교육을 시키는 대신들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으니 유념하시오."

"대신들을 궁에서 자주 보니 스스럼이 없어서 그럴 것이옵니다. 수시마 왕자님은 천성이 선한 왕자이옵니다. 너무 선해서 오히려 걱정이옵니다."

칼라따까의 말은 거짓이었다. 수시마가 대신들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소문은 사실이었다. 깔라따까도 어린 수시마에게 모욕을 당한 일이 있었다. 브라흐민이 외는 〈베다〉를 가르치는 시간에 수시마가 갑자기 장난으로 칼라따까의 뺨을 쳤던 것이다. 이후 칼라따까는 앙심을 품고 수시마에 대해서 친한 신하들에게 은근히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수시마가 나의 뺨을 때렸소. 장차 왕이 되면 나의 목을 칠지도 모르겠소.'

깔라따까의 말에 빈두사라는 수시마를 걱정했다.

"수시마가 선하다는 말은 맞소. 허나 왕은 때로는 잔인해야 한다고 까우띨리야 대신에게 배웠소. 다만 왕의 잔인함은 백성을 위해 써야지 왕자신을 위해서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했소."

"대왕의 통치술은 일찍이 까우띨리야 대신으로부터 배운 것인 줄 저도 알고 있었사옵니다."

실제로 까우띨리야만큼 빈두사라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은 없었다. 까우띨리야는 어린 빈두사라를 가르쳤다. 왕은 권력을 사용할 때 냉혹해야 한다고. 왕이 휘두르는 통치봉은 물고기의 세계처럼 약자는 모두 강자에게 잡아먹히는 약육강식이 횡횡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라고. 왕이 행복하면 백성도 행복해지고, 왕의 이익은 백성의 이익이라고. 다만 왕의 이익은 자신이 아니라 백성에게 좋은 것이 이익이라고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들었던 것이다. 까우띨리야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여러 종교의 수행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아 왕자가 우주와 세계, 인생을 알게 한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빈두사라는 빠딸리뿌뜨라 내성에 여러 종교의 수행자들을 살게 했고, 날마다 공양하는 전통을 지켜왔던 것이다. 빈두사라가 수행자들을 특별하게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단 하나 왕자 교육을 위해 그래왔던 것이다.

그날 이후. 칼라따까는 빈두사라에게 여러 명의 불교 수행자를 추천했다. 짧게는 서너 달에 한 번, 길게는 1년에 한 번 궁으로 데리고 와 소개했다. 빈두사라가 빠딸리뿌뜨라성으로 돌아 온 지 4년이 된 어느 날이었다.

"짬빠성에서 온 수행자이옵니다. 다르마 왕비님의 고향에서 온 수행자인데 법력이 높다고 하옵니다."

"법력이 무엇이오?"

"전생을 보는 능력이거나 미래를 보는 능력을 뜻하옵니다."

"그 구루의 이름은 무엇이오?"

"목갈리뿟다띳사이온데 비록 나이는 젊지만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가 않사옵니다."

"수시마를 가르치게 하시오."

깔라따까는 망설였다. 마음속으로 수시마의 스승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무얼 망설이시오?"

"수시마 왕자는 불교 수행자가 맞지 않을 것 같사옵니다."

"왜 그렇소?"

"수시마 왕자님은 라다굽따 제관을 따라서 강가강으로 나가 인드라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불교에는 그런 의식이 없사옵니다. 그러니 수시마 왕자님은 불교 수행자에게 곧 흥미를 잃고 말 것이옵니다."

"수시마의 취향이 그러하니 라다굽따 제관을 계속 붙여주어야 할 것 같소."

라다굽따 제관은 인품이 원만한 브라흐민이었다. 어떤 왕자든 라다굽따를 싫어하지 않고 따랐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성품에다 있는 듯 없는 듯 처신했기 때문에 궁 안에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제관의 역할에 충실할 뿐이었고, 빈두사라를 말없이 보필하는 데만 만족했다. 직언하기를 꺼리는 것이 단점이었지만 그래도 빈두사라는 안정감 있는 그를 신임해 항상 옆에 두고 조언을 구했다.

빈두사라는 칼라따까의 말에 양미간을 찌푸렸다. 수시마가 법력이 있는 목갈리뿟다띳사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좀 전의 말에 실망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빈두사라는 목갈리뿟다띳사를 만나고 싶어 아쇼까를 들먹였다.

"목갈리뿟다띳사를 어렵게 찾았을 텐데 아쇼까는 어떻소?"

이는 칼라따까가 내심 갈망하던 바였다. 그러나 그는 짐짓 딴청을 피웠다.

"아쇼까 왕자님도 불교 수행자를 싫어하실지 모르겠사옵니다."

"법력이 높다는데 또 어디서 찾을 수 있겠소. 그러니 아쇼까가 싫어하든 말든 강제로 한 번 맡겨 보시오. 나는 왕비 별궁에서 구루의 법력을 한 번 시험해 보겠소."

빈두사라는 칼라따까에게 3일 뒤 젊은 목갈리뿟다띳사를 다르마 왕비 별궁으로 데려 오도록 지시했다. 그날부터 칼라따까는 긴장해서 안절부절못했다. 목갈리뿟다띳사에게 과거나 미래를 보는 법력이 있다고 추천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처지가 난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계속〉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전통예술 | 자체제작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법고
법당천도법고
태 징
목 어

경기도

경기도 하남시 산곡북로 49-50
031)793-3906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www.yangjikukak.com